

#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http://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7월 12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사 43:1-6, 44:1-5

제목 : 선민의 신앙 · 늘 푸른 인생(3):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의 찬양을 선포할 것이라”

말씀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 43:19)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7월에 들어서 선민의 신앙, 늘 푸른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두려움이 없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신앙의 자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삶 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선민의 신앙의 자세임을 전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을 시내가의 버드나무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선택받은 신앙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Soli Deo Gloria)는 종교 개혁자들이 추구한 신앙의 핵심 본질입니다. 이 신앙은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 보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자는 바울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책으로 평가되는 로마서입니다. 그 중 교리를 다룬 부분이 1장-11장입니다. 바울은 11장 끝 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롬11:36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교우들에게는 이 사상을 실천할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선민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2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이러합니다. <이 백성은> 앞에 나온 것은 특별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특별히 나를 위하여 지었다. 즉 선택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입니다. <하려 함이니라>는 <어떤 사실을 보고 하는 것>, <선포하는 것>, <글씨를 책에 기록하는 것>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제가 미완료 강조 형입니다. 계속 만천하에 널

리 선포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기록을 하면서까지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찬송하게>의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나의 찬송을>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나의 찬송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란 뜻입니다. 여기서 <나의 찬송>의 영어 번역은 <my praise>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의 정확한 의미는 <이 백성은 나를 높이는 찬송을 만천하에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만들었다>입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찬송 79장을 택해서 불렀습니다. 3절은 구원받은 자녀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후렴의 영어 가사는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당신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당신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후렴에서만 당신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가 네 번 나오는 데 감탄문입니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영어 가사에 충실해서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크시도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크시도다.”

선민인 신앙인의 삶의 태도는 삶에 여러 정황들이 일어날 때 특히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되면 반드시 감탄을 하면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일이 선민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은총을 위에서 내려주셔서 풀들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처럼 번영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너희는 이전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forget the former things) 지난 과거의 일 안에 거하지 말라(do not dwell on the past)>입니다. <dwell on> 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들에 집 짓고 그 안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에서 <일>은 복수 명사형입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을 잊으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출애굽 한 사건까지도 이 시점에서 잊으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기념비적인 사건도 이 시점에서 왜 잊으라고 하십니까? 출애굽 시에 했던 방법과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니 잊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출애굽의 기적보다 더 그 기적을 능가하는 일을 행할 것이니 잊으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니 잊으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과거의 일들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류시화 시인이 삶에 좋은 교훈을 주는 시는 물론이고 책들을 많이 펴냈습니다. 작년 12월에 인도우화집을 냈습니다. 제목이 <신이 씬 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입니다. 이 책입니다. (사진)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왕이 매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마리의 매입니다. 이웃 나라의 군주가 우호의 상징으로 보내 왔습니다. 고대 왕들에게 매는 특별한 기상의 상징입니다. 사진 (매를 들고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영박물관 소장 무굴제국의 세밀화 <매를 들고 있는 아크바르 왕의 아들> 선물로 받은 매는 등은 푸른 회색이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인 듯 강력한 날개 아래 흑백의 깃털이 부드럽게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위엄 있는 눈빛과 자부심 넘치는 자태에 매혹되어 왕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매들을 감상했습니다.

왕은 나라 안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매 조련사에게 새들을 맡깁니다. 훈련을 시켜서 잘

날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세 달 뒤, 왕의 기다림이 인내를 잃기 시작할 무렵 조련사가 와서 한 마리 매가 훈련을 아주 잘 받아서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대한 날개를 좌우로 펼치고 산과 들판 위를 장엄하고 당당하게 날면서 구름 한 점 없는 날에도 끝없이 솟구쳐 날아올라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는 새의 모습에 왕은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련사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의 매는 온갖 방법을 취해도 훈련을 시작한 첫날 앉아 있던 나뭇가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련사가 최선을 다한 것을 이해한 왕은 그 소중하고 멋진 매가 날 수 있도록 온 나라의 조류 전문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심지어 조류 심리학자와 주술사까지 불렀는데 어떤 접근에도 매는 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새가 갑자기 새로운 장소로 옮겨 온 것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자는 어미 새가 둥지 밑으로 떨어뜨린 어린 새였을 때의 깊은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모든 치료법과 먹이에 섞어 먹인 진정제에도 불구하고 매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정해진 때가 되면 매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고, 성직자들은 종교 의식을 거행하며 주문과 기도문을 외웠지만 매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끝없는 진단을 듣는 데 절망한 왕은 어쩌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물과 자연의 본성에 관한 지혜를 가진 이만이 해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왕은 그 두 번째 매가 장엄하게 날개를 펼치고 왕궁 위 높은 하늘을 나는 광경을 보고 전율하게 됩니다. 왕은 곧바로 대신을 불러, 이 기적을 행한 현자를 데려오라고 일렀다. 놀랍게도 대신이 왕 앞에 데려온 사람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매를 날게 할 수 있었는가?" 농부가 대답합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다니, 무슨 뜻인가? 모든 전문가와 조련사들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농부가 대답합니다. "제가 한 일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새가 앉아 있던

나뭇가지를 잘라 버렸을 뿐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앉아 있는 나무 가지를 잘라내니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마음에 움켜쥐고 있는 과거의 아픔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시간들도 잊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깨끗하게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수터에 가서 새 물을 받으려면 통 안을 한번 깨끗이 씻어서 통 안에 남아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살고자 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해방을 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포로생활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혀주신 것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 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나를 영화롭게 하면서 내 이름을 높여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는 첫 주에 말씀을 드렸기에 오늘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또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의 모든 쓸 것을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해야 삶에 열매가 응답인 것을 알게 되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코로나 19 중에 열린 제 1차 새벽기도회 참석했습니다. 집을 장만해서 지금의 전세를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기도했습니다. 미스바 새벽기도회를 마친 금요일 전세를 내어 놓았습니다. 전세를 내어 놓으면서 주인에게 집이 좀 오래 되었으니 새로 오실 분을 위해서 싱크대뿐만 아니라 화장실은 꼭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처음엔 주인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아끼는 분인가 하면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지금까지 한 20년 되었는데 분양 받을 때의 도배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세가 잘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전세를 내어 놓은 그 다음날 세 분이 집을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집을 보고 간 분은 우리 성도님이 집에 없을 때 집 비빌 번호를 알려주어서 보고 간 분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 그렇게 돈을 아끼던 분이 새로 들어올 분에게 거의 전면적으로 수리를 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니 공인 중계사가 주인에게 새로 들어오려면 집을 새롭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미스바 새벽기도 마치고 전세를 내어 놓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것도 측량 못할 은혜로 수월하게 계약을 하게 하시면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제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솔리 데오 그로리아 (Soli Deo Gloria)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심야기도를 마친 후에 몸이 좀 피곤할 때면 사택으로 가면서 차안에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마당에 주차 공간이 없으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되는 데 차를 댄 후 지쳐서 계단을 오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차 공간 한 곳을 주시

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의 이럴 경우엔 정말 빈곳이 한 곳이 있는지 그 늦은 시간에 주차했던 차가 바로 제 앞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할 일은 간발의 차이로 저보다 늦게 뒤 따라 들어오는 차를 볼 때입니다. 그런 때에는 더 감사가 나옵니다.

종양이 있어 검사결과 인파선 암으로 판명 받고 금요일 입원한 이호선 권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내일 검사도 없는 데 입원해 있네요. 기회 있을 때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 싸인 인가 봐요 수술은 없고 화요일 펫트(pct) 사진 찍고 항암 치료 받으면 된대요. 내가 목사님과 교회에 힘이 되어야 할 텐데~ 목사님 힘내세요. 훈련받고 하나님께 영광드려야지요~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선민의 신앙 감사의 삶,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건강도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솟아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선민의 백성으로써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속에서 그 모습을 보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솟아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지난 과거의 일 안에 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픔을 주었던 과거의 일들 안에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깨끗이 잊고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Soli Deo Gloria>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